

농어촌公 강원-농어촌公 원주, '저수지 비상대처 합동 훈련' 실시

✎ 김미성 기자 | Ⓞ 승인 2025.08.20 14:54

하류 주민 긴급대피 및 제방 붕괴 시 긴급복구 등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원주지사와 합동으로 20일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건등저수지에서 2025년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원주지사와 합동으로 20일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건등저수지에서 2025년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의 발생시기와 양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저수지 수위 급상승에 따른 제방 붕괴를 가정해 실시됐다. 공사 직원과 원주시 유관 기관, 지역주민 등 약 40명이 참여해 재해 대응 능력을 점검했으며, 훈련 과정에서는 ▲하류 주민 긴급대피 ▲제방 붕괴 시 긴급복구 ▲복구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등 단계별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김명일 강원지역본부 본부장은 “극한 기상 상황이 갈수록 잦아지는 만큼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통해 지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난 대비 태세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성 기자